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부활 제5주일 2016.4.24.(다해) 제1995호



모화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부활 제5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세상은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느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셨습니다(제2독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사도 14,21ㄴ-27 **제2독서** 묵시 21,1-5ㄴ **복음** 요한 13,31-33ㄴ,34-35.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의 얼굴

신종호 분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사랑이 온통 푸른빛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자연은 출발 준비를 마치고 100m 달리기를 시작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앞다투어 잎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잎사귀 내지 말고 꽃 피우지 말라고 말려도 귀담아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생명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고 예쁘게 꾸미고 뭔가를 만들어 냅니다. 창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남기시지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계명이 빵조각을 받은 유다가 떠난 직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주 속에 심지어 당신을 배반한 유다도 들어 있지 않을까요?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 시작의 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니요? 목숨까지도 다 내어 줌이 영광이라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필리 2,8 참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의 아들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무언가를 잔뜩 지니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다 내어줄 때의 영광입니다.

유다의 배반이 시작되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함.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라는 초대입니다. 배반자조차도 사랑함, 그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바친다면 그것은 동시에 지금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다짐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은 이 지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거처"(묵시 21,3)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활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

교회문화 산책

성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와 마크 로스코

백미혜 크리스티나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인 달과 별들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하늘에 달과 별들을 맑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지으셨나이다.”…

(성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 중)



무제 / 캔버스에 유화 / 171.8*142.6cm / 1949

자연과의 일치를 통한 하느님과의 사랑은 성 프란치스코 영성의 진수입니다. 특히 오상을 입으신 후 육신의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온 이 태양의 노래는 그분의 가난, 고통, 겸손, 절제의 삶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빚어진 보석입니다. (한 때,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던 시절의 저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함께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저 아시시 출신의 시인으로만 생각한 적도 있었답니다.)

오늘 소개하는 로스코의 아름다운 이 색면회화 역시 지난번 작품처럼 제목이 달려있지 않

네요. 생전의 로스코는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어떤 것도 놓지 않기를, 어떤 설명도 달지 말기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다만 침묵으로 고요히,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기만을 바랐어요. 화가 로스코는 피조물의 겉모습을 중개방송 하듯이 옮겨놓는 그림보다는 내재하고 있는 영성과 소통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의 숭고한 그림들을 감상하노라면 그가 그렇게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림 도판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그림은 일견 단순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단순한 색면 하나를 세계의 유명 미술관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의 그림은, 가까이서, 원화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1대 1로 만날 때만 진면목을 보여주는 화가니까 말이에요. (아 참,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신다면 꼭 그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로스코 채플을 방문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색채들이 얇게 층을 이룬 채 심오한 깊이를 이루는 그의 색면 속에는 짙트는 씨앗, 원형질의 띠, 번개 같은 스파크, 얼룩들, 굵힘들, 흘러내림, 타격, 점묘 등 온갖 색칠 기법으로 표현된 표면 질감을 숨기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우주적 사랑이 지금 우리 존재의 심연을 모두 껴안고 있듯이 화가 로스코 또한 성인과 같은 성찰의 빛공간을 표현해냄으로서 우리 내부의 원초적인 영성을 거룩한 곳까지 이끌어 올립니다. **필문**

자비의 희년에 생각하는 장애와 환경

차호영 비오 사무국장 |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쁜 희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해 12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희년”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라.”고 요청하시고, 교회가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생히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자선 사업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품위 있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 받아 온 장애인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장애인을 보고 장애를 극복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킵니다.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에 잘 적응하는 데에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사로와 점자블럭이 설치된 성당에 장애인이 미사참례를 할 수 있고, 은행에서 ARS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저상버스로 만들어진 고속버스가 있으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충분

히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만든 엘리베이터는 다리 힘이 약한 어르신과 아이, 유모차를 끄는 사람,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 모두 유용합니다. 칫솔질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전동칫솔은 칫솔질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를 비롯해 일반인에게도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는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 생각이 바뀔 때 더 많은 장애인이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자비는 세상을 바꿉니다. 약간의 자비로도 세상은 덜 차갑고 더 정의로운 곳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평신도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 환경에 자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다그치십니다. 가난한 이가 없는 복음은 그저 정보 습득에 불과하고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독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몇 푼 돕는 자선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탕자의 귀향을 따뜻이 맞아주시는 하느님 자비의 얼굴을 뵈게 될 것입니다. **▶▶▶**

재미있는 교회상식

영대(stole)



신부님들의 복장 중에 흰색 장백의 위에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맨 좁고 긴 띠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영대라고 부르는데 성직자가 자신의 성무 집행의 표시로 착용하는 전례복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고대 동방에서 상용하던 장식술이 달린 화려한 목도리에서 유래되었

다고 하는 이 영대는 교회에서는 4세기경 부제들이 명예를 표시하는 휘장으로 처음 사용하였고 6세기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영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밧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밤 성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닦기 위해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요한 13,4-5)을 상징하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마태 11,30)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아울러 영대는 성품성사를 받은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 권한과 품위를 나타내는데 고해소에서 사죄권을, 그 밖에 세례식이나 기타 의식을 집전할 때는 집행 권한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목자로서 지녀야 할 영적인 덕행을 상징하며 대중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직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제는 영대를 착용하기 전에 영대 상단에 있는 십자가에 입을 맞춘 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주님께 봉사하기에 합당치 못하오니, 원조의 타락으로 잃은 불사불멸의 영대를 제게 도로 주시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영대를 착용할 때 주교를 제외한 사제는 영대를 X자가 되도록 교차해서 착용하였으나 지금은 주교나 사제나 똑같이 양쪽이 평행 되게 하고 부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비스듬하게 착용합니다. 영대는 장백의 위에 띠로 고정시켜 착용하는 사제 영대(sacerdotal stole)와 제의와 장백의를 융합한 장백의식 제의나 중백의, 소백의 위에 착용하는 사목 영대(pastoral stole)로 구분되는데 사목 영대는 가슴 높이에 끈으로 연결되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밑으로 쳐지지 않게 잡아 주며 띠로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이 2.5m, 넓이 10cm 정도로 제의와 동일한 재료, 색깔로 만드는 영대는 전례력에 따라 그리고 전례의 성격에 맞춰 색깔을 바꿔서 착용합니다. 고해성사를 집전할 때는 통회와 보속의 의미로 보라색을, 세례성사, 축성, 성체강복이나 병자성사를 집전할 때는 흰색을 착용하고 그 외에는 제의와 동일한 색깔의 영대를 착용합니다.

미사와 성사 그리고 축복 등 모든 성무집전의 순간에 사제는 반드시 영대를 착용합니다. 그만큼 전례를 집전하는데 있어서 영대는 꼭 필요한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대를 통해서 전례 집전자는 사명을 드러내고 전례를 통해 베푸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필문**

교구장 동정

■ 2016년 대구성령대회



2016년 대구성령대회 감사미사가 4월 16일(토) 오후 4시 고령 대구성령봉사회관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신서성당 견진성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4월 17일(일) 오전 10시 30분 신서성당에서 74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대구주보 2000호 기념 특별 프로그램

■ 신앙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기간 : 2016년 4월 11일(월)~5월 10일(화) 마감일 도착분

접수 : 교구 문화홍보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jubo@dgca.or.kr

■ 대구주보 2000호 축하톡톡

기간 : 2016년 4월 18일(월)~5월 15일(일)

내용 : 축하와 응원의 한 줄 메시지(30자 이하)를 보내 주세요

■ 대구주보 최다 보유자를 찾습니다

기간 : 2016년 5월 20일(금)

접수 :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 자세한 사항은 대구주보 홈페이지(<http://www.daegujubo.or.kr>) 공지사항 참고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과,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시편 31,25)

서로 ♥하입시데이



미 사 안 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25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4월 26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25일(월) 11:00 계산성당		4월 26일(화) 19:30 다사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4월 25일(월) 11:00 수성성당		4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미사	4월 27일(수) 19:00 성의여교 경당		4월 27일(수) 14:00 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5월 예수고난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5.7(토) 15:00~18:00

장소: 남대영기념관
(현충로역)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들
문의: 이마리오 신부, (010)7507-600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5.1(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5.17(화)~18(수)

시니어 피정: 5.24(화)~25(수)

장소: 효령 하늘집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5.7(토) 10:00

일정: 10:00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찬양미사(안수) 면담 및 고해성사

버스: 영남대역 4번출구(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

기간: 5.18(수)~20(금) 매일 10: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대구 파동)

대상: 기도를 깊이 배우고 싶은 분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분
문의: 감마리아수녀, (010)2505-9545

천호성지 주말 영성 피정

기간: 5.14(토) 16:00~15(일) 14:00

장소: 천호성지 피정의집

주제: 신앙의 기쁨(김광태 신부)

문의: (063)263-1004

해바라기 봄 피정

기간: 5.7(토)~8(일)

장소: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대상: 37세 이하 미혼 여성

주최: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문의: (010)9510-1131

교육 | 모집 | 기타

자비의 특별히년 크루즈 성지순례

1차: 5.27(금)~6.6(월) 10박 11일

2차: 7.15(금)~25(월) 10박 11일

장소: 스페인, 영국령, 프랑스, 이탈리아

경비: 내측 498만 원, 발코니 528만 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빛떼제 기도

일시: 5.14(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27차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청소년 및 가족(1차 7.19 2차 7.23)
대학생(6.25) / 문의: 593-1273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8차)

일시: 4.28(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바로 알기

강사: 정형외과 최원기 교수

48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설명회

초·중·고: 7.21(목)~8.12(금)

대·일반: 6.26(일)~8.7(일)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

설명회: 5.14(토) 14:00, 남산성당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0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대구연세안과
아이디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안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종원(소시모)
현.연세대외래교수
☎ 053)626-8881~5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결혼명가
노블코리아
중신 잘하는 집!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 053)639-8998
박옥순(요안나) 영주(젬마)
동대구역 신세계 부띠끄시티II 드라마트 10층 14호

16년
최추 · 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대거리 ☎ 053)628-4111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3대를 이어온 경숙고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숙고 제품 ☎ 공진단
☎ 경숙고(젤류, 환, 차, 팩, 삼푸 등)
☎ 홍삼제품 ※교우 특별 할인
양대석(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4월 27일(수)은
(故)김경식(보니파시오) 몬시뇰
선종 6주기입니다.

교육 | 모집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 교육

일시: 5.9(월)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송재준(마르코) 신부
마감: 5.1(일) 마감업무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수성성당 가브리엘 성경대학 기금마련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소품전

기간: 4.23(토)~24(일), 수성성당
문의: 수성성당, 742-0224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60세 이하)을 찾습니다
연습: 매주(일) 18:00
오디션 후 파트결정합니다
문의: (010)3817-1963 / (010)3516-1911

사진 무료 강좌

기간: 5~6월 매주(금) 19:00
장소: 교구청 가동 305호
주최: 가톨릭사진가회
신청: (010)4043-7307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자 모집(몽골)

기간: 8.3(수)~12(금) / 대상: 20~28세
인원: 20명 내외 / 비용: 개인 80만 원
마감: 5.18(수)
주관: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문의: 253-9991 / www.dgcaritas.or.kr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루트,
성인생활영어회화, 댄스·유화·수채화
바이올린, 오카리나 / 문의: 476-6211

2016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접수기간: 5.2(월)~13(금) 예정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2~3(특수)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주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교구에서 출자하고 운영 중인 상
조회사는 (주)매일상조 한 곳 뿐입
니다. 이 외에 '가톨릭'이라는 상
호를 사용하는 장례업체는 교구
와 무관합니다

2016년 대구평화방송 봄철 프로그램 개편

개국 20주년을 맞아 열린 방송, 사회 공동선 추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니다

행복한 세상 931 월~목 11:05	그대에게 평화를, 김현정입니다 1부 월~금 14:05	대구 평화음악실 1,2부 월~금 17:15
특별기획강좌 '청소년교육,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금 10:30 계산성당 1교리실	녹음방송 차주 금 11:05 (재방송 주일 11:05)	
주간가톨릭매거진 토 11:05	행복한 신앙생활 토 17:15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 토 18:05

※ 봄철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251-2650,54

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 대상이름: 지열, 태양광 시스템)
LED 조명, 전력·조명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에너지 절약 컨설팅
RECS
Renewable Energy Consulting Solution
T. 053)573-0205 (손 미카엘)
위치: 대구테크노파크벤처기업센터
(※ 대리점 모집, 일 배우실 분 환영)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HNT 하나투어
(주)이시아투어&(주)김스여행
2016년 대회를 대비의해 선포기념
이태리 일주(로마방문) 9일
출발일: 6월 27일
☎ 053-956-8888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윤원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원희(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세석)
범어네거티브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김은연 세실리아 ☎053)257-8588
동인점 최준우 미카엘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참조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